

어른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유 범 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문초록

본 논문은 어른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우선 어른의 상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한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어른담론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노년>이라는 보브아르의 논의를 중심으로 어른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베이붐 세대와 민주화세대가 노년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때에 어른 담론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키케로는 그의 책 <노년에 관하여>에서 노년예찬을 일관되게 전개한다. 플라톤의 철 인왕이 노년이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논지와 같은 맥락에서 키케로는 노년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시기라고 본다. 하지만 노년은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동일하게 현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해 보브아르는 <노년>이라는 책에서 키케로의 노인은 가진자들에게나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권력과 경제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 노인들이 자기계발이 가능하려면 불평등과 계급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키케로의 노년예찬을 보브아르의 논의에 기대어 살펴보고, 노년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 주제어 ■ 어른담론, 노년, 키케로, 노년예찬, 보브아르, 구조적 불평등

* hourun@mail.knou.ac.k

1 어른담론에 대한 문제제기

‘어른은 없고 끈대만 가득한 시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가 방영되었다. “좋은 어른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어른 김장하’가 답하다”(2023.11.14/뉴스데스크/MBC경남)라는 보도도 나왔다. 김장하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물신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사례이다.

‘노인과 어른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 영화를 본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지식이나 열정의 주체이기보다는 어딘가 모자라는 존재”로 인식된다(정진웅, 2011: 755). 아프리카의 속담 ‘노인 한 명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 속의 노인이 현실에서 환생했다. ‘노마지지(老馬之智)’도 생각나게 한다. 제나라의 황제 환공과 제상 관중이 전쟁을 나갈 때 늙은 말을 데리고 간다. 전쟁이 끝나고 겨울이 닥쳐오는데 길을 잃었다. 이때 늙은 말을 풀었더니 길을 찾아냈다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늙은 말, 즉 노인이 공동체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김장하는 도서관 하나와 같고 길을 찾아낸 늙은 말의 지혜의 전형이다. 그동안 노인관련 기관에서 노인에 대한 호칭이 ‘어르신’이었다. 어르신이라는 담론의 전형적인 모델은 ‘어른 김장하’이다. 이런 모습의 노년을 예찬하는 이가 있다. 키케로이다. 그는 60대가 되어서 <노년에 관하여>라는 글을 쓴다. 이 글에서 그는 “소년의 특징은 허약하고, 청년의 특징은 저돌적이

고, 장년은 위엄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하다”고 말한다(장미성, 2021: 19). 노인이 도서관 하나와 같은 존재, 즉 현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노인은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는가’라고 노인호칭에 대해 조사를 하면 어르신이 후순위로 밀린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회원님’이다. 왜 노인들은 스스로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거부하고 있을까? 이 담론이 주는 부담감 때문이다:

“어르신은 현자여야 한다. 참아야 한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으로 언제나 멋진 모습이어야 한다.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랑과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유범상·유해숙, 2022: 28).

노인이 어른 혹은 어르신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지갑은 열되 입은 닫아야 한다.’ 어른이 되려면 김장하처럼 돈을 있어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 시대에 자기 돈을 쓰면서 누가 자신의 입을 닫고 싶은가. 어르신이라면 특히 삶의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귀감이 되기에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 어른 혹은 어르신은 노인에게 하나의 굴레이다.

본 논문은 어른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어른의 상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한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어른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른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자기 표현이

강한 베이붐 세대와 민주화세대가 노년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어른담론이 그들의 정체성으로 안착되는 것이 유효한지, 더 나아가 어른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플라톤의 노년예찬과 키케로의 자기계발

1) 플라톤의 어른담론

노년을 어른이 되는 시기로 규정한 논의는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에 따르면 동굴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의 등 뒤에서 비치는 햇불로 인해 생긴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림자는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고 진정한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때 현자가 나타난다. 철학자인 그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진리, 즉 이데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노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노인은 4가지 덕, 즉 지혜, 절제, 용기, 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이다. 이런 덕을 가진 현자들이 노인이며 노인들 중에 통치자가 뽑힌다:

“행복은 덕이며, 덕은 진리를 앎으로써 생긴다. 그러므로 동굴에서 나온 자들, 이데아를 관조한 자들만이 통치를 위해 뽑힌다”(보브아르, 2020: 150-151).

철학자에게 통치능력은 그냥 하늘로부터 푹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치능력은 자기계발의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0살이 되어
서야 비로소 통치자가 될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 교육도 청소년기에 시작해 50세에 이르러서야 충분한
결실을 맺게 된다. 철학자는 50세부터 진실을 소유하며, 그제
야 도시 국가의 보호자가 된다. 그러므로 플라톤이 바라는 ‘능
력’의 통치는 동시에 노인 정치 체제이기도 하다. 인간의 신체
적인 쇠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의 철학이었다. 사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진실은
이데아와 유사한 불멸의 영혼 속에 있으며, 육신은 걸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에 플라톤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서 구
속밖에는 보지 않는다. 후에 플라톤은 영혼이 육신을 자기에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육체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다고 생각했다. 영혼은 나이에 따르는 노쇠의 영향을 받지 않
는다는 것이다. 또 심지어는 육체의 식욕과 활기가 감소하면
영혼은 그로 인해 더욱더 자유롭게 된다고 했다”(보브아르,
2020: 150-151).

이상에서 보듯이 “플라톤은 노년의 가치를 확립해놓은 다음,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명령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 말에 복
종해야 한다’라고 결론짓는다.” 이들의 나이는 대체적으로 50
세 이후이다. 즉 현자와 철인왕이 되려면 50세에게 90세에 이
르는 시기에 이르러야 한다(보브아르, 2020: 151). 키케로는 ‘내
가 사랑하는 플라톤’이라고 할 정도로 플라톤을 존경하고 그의
영향을 받았다(김용민, 2007: 10). 이런 점에서 <노년에 관하
여>의 존경받는 노인은 플라톤의 철인의 비유로 읽힌다.

2) 스토아학파의 노년의 의미

키케로는 노년예찬의 대명사로 꼽힐 만큼 노년의 긍정성에 주목한다. 그는 플라톤을 사랑했고, 그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자이다:

“철학을 따르는 자는 인생의 모든 시기를 근심 없이 보낼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철학은 인간으로부터 아무리 칭송을 받아도 충분치 못하다네”(키케로, 2000: 20).

키케로는 스토아학파의 일원이었다. 스토아학파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입각해서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믿었다(김용민, 2018: 174). 이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스토아학파를 이해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질료인, 작용인, 형상인, 목적인 등이 있고 이들의 운동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 간다고 보았다. 질료는 그 안에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질료는 작용인을 통해 어떤 형상으로 변해간다. 이때 작용인은 영혼으로서 활동과 운동을 의미한다. 활동을 통해 잠재력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간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형상은 씨앗이라는 질료에서 나왔다. 씨앗은 작용인 즉 활동을 통해 나무가 되고 나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상을 갖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것은 목적이 있으며 목적에 도달했을 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모든 것들은 다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활동을 통해 어떤 형상을 갖추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풀에도 영혼이 있다고 할 정도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4인설로 설명한다. 즉 모든 존재는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스토아학파가 차용하고, 키케로는 노년에 적용한다.

스토아학파는 우주가 물질로 구성되며 우주 전체에 로고스가 스며들어 있다고 보았다. 로고스는 일종의 신 같은 존재로서 모든 사물의 생성원인이다(김용민, 2018: 174).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은 스토아학파에게 ‘우주의 영혼’인 로고스다. 로고스는 질서를 만들고 이 질서를 조화롭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인간에게 로고스는 이성이다. 즉 스토아학파에게 있어서 우주의 영혼은 로고스고, 로고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온 게 ‘이성’이라는 것이다. 이성이 인간에게 작용을 해서 인간답게 만든다. 이때 이성이 원하는 조화의 질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덕이다. 로고스와 이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인간으로 치면 현자뿐 아니라 아이, 빈민, 부자 등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 그래서 스토아학파는 평등주의의 철학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가족, 국가, 세계에서 활동함으로써 각각은 이성의 담지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질서들 속에 로고스와 이성이 스며들어 간다. 따라서 인간답게 사는 것은, 로고스가 명령한 대로, 이성이 명령한 대로 사는 것이고 이런 명령은 자연법에 녹아져 있다. 키케로는 말한다:

“피타고라스와 그의 학파는 우리가 우주의 신성한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곤 했지. (...) 영혼의 재빠름이라든가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예견이라든가 많

은 기예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발명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가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네”(키케로, 2000: 112).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시국가를 배경으로 했다면, 키케로는 로마라는 대제국을 전제로, 전체 우주로까지 사고를 확장했다. 그는 우주 속에서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지를 묻고 인간은 우주라는 큰 도시의 시민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즉 인간은 코스모폴리탄, 즉세계시민이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를 넘어 우주라는 영역의 확장을 통해 급진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자연 이치를 깨닫고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이런 이성이 가장 잘 발현되는 때가 노년기라는 것이다. 스토아학파는 노년기에 덕을 갖춘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오이케이오시스(oikeiosis), 즉 내가 내 운명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파테이아(Apatheia), 즉 어떤 걸 보더라도 출렁거리지 않고 부동심의 마음이다. 이런 평상심을 갖게 되면 일희일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상태로서 자유에 도달한 금욕주의 상태이다. 세 번째 덕은 컨비비움(convivium), 즉 함께 살아가는 것에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 내 이웃이 나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조화와 질서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스토아학파는 내가 내 운명을 알게 되면 이성에 따른 실천을 하게 되고, 부동심과 평상심을 가지게 되며, 공동체에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덕은 언제 실현될까? 노년이 되

고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키케로는 이런 맥락에서 노년을 예찬한다. 노년은 다음의 사실을 깨닫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삶의 여정은 정해져 있으며 자연의 길은 하나이며 단순하지. 또 인생의 각 시기에 적절한 특징이 주어져 있다네. 그리하여 유년기의 연약함, 청년기의 격렬함, 중년기의 장중함, 노년기의 원숙함은 각 시기에 거두어져야만 하는 자연스러움을 지니고 있다네”(키케로, 2000: 60).

이처럼 키케로의 이야기에 스토아학파의 이야기가 배어 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혼은 늙거나 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혼이 불멸하지만, 내가 자연적인 것은 몸이 사라진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키케로는 스토아학파 철학에 기반으로 해서 노인의 자연스런 질서, 조화로움의 관점에서 위치에 두고 그럴 때 자연법에 기반해서 가장 잘 익어진 상태라고 본다.

3) 키케로의 노년의 자기계발

스토아학파의 일원인 키케로는 인간을 우주 속의 세계시민으로 상정했다. 그에게 이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시기가 노년이었다. 노인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한 이는 키케로이다:

“분별력과 이성과 현명한 조언은 노인들 몫이네. 그러나 노인들이 없다면 어떤 국가도 존재할 수 없었을걸세”(키케로, 2000: 78).

키케로는 그의 책 <노년에 관하여>에서 노년의 결함이라는 가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노년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상의 결함 때문이다:

“사람들은 노인들이 통명스럽고 대화하기 힘들고 화를 잘 내고 까다롭다고 말들 하지. 우리가 잘 관찰해본다면 그들은 인색하기조차 하다네. 그러나 이러한 결점은 성격상의 결점이 지 노년 특유의 결점이 아니라네. 방금 말한 노인들의 통명스러움과 그 밖의 결점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타당하게 보일 수 있는 변명거리가 있다네. 자신이 무시당하고 경멸받고 비웃음을 산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하다네. 더욱이 쇠약해진 육체에 대해 어떠한 타격도 가증스러운 것이라네. 그러나 이 모든 결점은 좋은 성품과 수련에 의하여 달콤한 것이 된다네”(키케로, 2000: 98).

스토아학파는 내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렸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키케로는 노년의 최고의 무기는 학문을 닦고 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년의 한계라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다네. 노인이 그 직책을 계속하여 꾸려나가고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한, 그는 노년에 올바르게 산 셈이지. 이러한 태도로부터 노년은 청년기보다 활기가 넘치고 용감해진다네”(키케로, 2000: 105).

이상에서 보듯이 노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우주의 원리와 덕을 쌓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계발에 있다는 것이 키케로

의 입장이다. 그는 제대로 된 노년은 자신이 있고 없어야 할 시기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마치 집으로부터가 아니라 여인숙으로부터 떠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나는 삶으로부터 떠난다네. 자연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닌 잠시 머무를 거처를 주었기 때문이지”(키케로, 2000: 117).

키케로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노년은 이데아와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모든 노년이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기성찰, 관조, 노력 등의 자기계발을 한 노인에게 해당한다.

3 키케로의 노년 옹호론

키케로의 노년의 자기계발론은 그의 노년 옹호론에서도 빛을 발한다. 흔히 사람들은 노년을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로 네 가지 부정적인 노년의 현상을 지적한다. 키케로는 이것을 조목조목 들고, 이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한다:

“나는 노년이 비참해 보이는 네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네. 첫째,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둘째, 노년은 우리 몸을 허약하게 하며, 셋째, 노년은 우리에게서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가며, 넷째, 노년은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지.”(키케로, 2014: 29).

키케로는 첫째, ‘노년이 노인을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일 반론에 대해 비판한다. 그는 노년에 외형적으로 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큰일은 체력이나 민첩성이나 신체의 기민성이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따라 이루어지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자질은 노년이 되면 대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네. 나는 병사로서, 연대장으로서, 장군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온갖 전쟁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니 자네들에게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지. 하지만 지금도 나는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원로원에 조언을 해주고 있다네. 오래전부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카르타고에 나는 미리 앞질러 선전포고를 해두고 있다네.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나는 그 도시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을 걸세”(키케로, 2014: 31).

노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와 경험으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일을 맡는다. 특히 그는 몸이 아니라 영혼과 두뇌를 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바쁜 존재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노인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계발을 한 노인에게 해당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했던가. 기억력을 훈련하지 않거나 날 때부터 아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테미스토클레스는 모든 시민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네”(키케로, 2014: 34).

이처럼 노인이 활동적인 존재로서 공동체에 의미있는 존재가 되려면 자기계발해야 한다. 키케로도 노년에 열심히 자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가 고대인들이 즐겨 배우던 현악기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말을 듣고는 나[키케로]도 그렇게 해보기도 하였다네. 아무튼 그리스어만큼은 나는 열심히 배웠다네”(키케로, 2014: 38).

키케로는 노년에 대해 두 번째 통설, 즉 ‘노년이 되면 몸이 허약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그는 일단 몸이 청년기보다 노년기에 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젊었을 때 황소나 코끼리의 힘을 아쉬워한 적도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도 나는 젊은이의 체력이 아쉽지가 않네. 이것이 노년의 약점에 관한 두 번째 주제이니까 하는 말일세. 사람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되 매사를 자기 힘에 맞게 행해야 하네”(키케로, 2014: 39).

키케로는 노년에 몸이 허약한 건 맞지만 청년만큼의 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인에게 그 힘에 걸맞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설사 노년이 되어 체력이 소진되었다 해도 노년에게 체력을 요구하는 일은 없네. 그러니까 내 나이쯤 되면 법률과 관습에 따라 체력 없이 할 수 없는 공공 봉사에서는 면제된다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노인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도 요구하지 않는다네”(키케로, 2014: 47).

이처럼 노년은 자기의 몸의 능력에 맞게 자신의 활동을 하면 된다. 따라서 몸은 허약해지지만 공동체의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몸이 허약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자기계발을 한다면 허약해지지 않는다고 키케로는 주장한다:

“노년에도 훈련과 절제를 통해 이전의 체력을 상당히 유지할 수 있다네”(키케로, 2014: 44).

“노년의 약점을 근면으로 벌충해야 하며, 마치 질병에 대해 싸우듯 노년에 대해 싸워야 하네”(키케로, 2014: 47).

키케로는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노년에 의욕을 잃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그는 의욕이나 쾌락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을 잃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쾌락을 쫓는 욕망이 악이나 나쁜 행위를 충동질한다. 쾌락이라는 유혹이 강간, 간통, 기타 모든 범죄를 일으킨다. 자연이나 신이 인간에게 정신보다 더 뛰어난 것을 주지 않았으므로 이 신성한 선물에 쾌락보다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욕망이 지배하는 곳에서 절제의 여지는 사라지며, 쾌락의 영역에서 덕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 이런 이유로 해서 어떠한

것도 쾌락만큼 가증스럽고 파괴적인 것은 없다. 왜냐하면 진실로 쾌락이 넘치거나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영혼의 빛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키케로, 2000: 66).

노년기에 쾌락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공공성이 증가하고 절제와 관조의 미덕이 증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노년이 되어 쾌락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극구 칭찬받아 마땅하기 때문일세. 노년에는 진수성찬도 잔뜩 차린 식탁도 자꾸만 채워주는 술잔도 없네. 따라서 노년에는 주정도 소화불량도 불면증도 없지. 하지만 쾌락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면-쾌락의 유혹에 버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는 말일세. 그래서 플라톤은 쾌락을 ‘죄악의 미끼’라고 적절히 표현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물고기처럼 쾌락에 낚이기 때문이지-노년에는 무절제한 진수성찬은 안 되겠지만 절제 있는 회식은 즐길 수 있을 걸세”(키케로, 2014: 55).

마지막 통설, 즉 노년의 죽음에 대해서도 키케로는 반박한다. 사람들은 노년은 죽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키케로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형평이 더 나은 셈이네. 젊은이가 바라는 것을 노인은 벌써 얻었으니까. 젊은이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노인은 이미 오래 살았으니 말일세”(키케로, 2014: 79).

이처럼 키케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청년기의 죽음은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상하고 비통한 것이지만, 노년기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증표이다. 이것은 자연과 조화된다:

“노인들이 죽음을 맞는 것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젊은이들도 같은 일을 당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자연이 반항하고 저항한다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죽으면 마치 강한 불길에 많은 양의 물에 의해 꺼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노인들이 죽으면 마치 외부힘이 가해지지 않는 가운데 불이 다 타서 저절로 꺼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마치 과일이 설익었을 때는 따기가 힘들지만 농익었을 때는 저절로 떨어지듯, 젊은이들에게서는 폭력이, 노인들에게서는 완숙이 목숨을 거두어간다네. 또한 내게는 이런 ‘완숙’이라는 생각이 몹시도 즐거워, 내가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고는 항구에 들어서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네”(키케로, 2014: 80-81).

노년기의 죽음은 완숙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죽음의 관점 덕분에 노인은 더 용감해질 수 있다:

“죽음을 무시할 수 있는 까닭에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대답하고 용감해지는 것이네. 솔론이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에게 대답한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겠지. 대체 무얼 믿고 자기에게 그토록 대답하게 반대하느냐고 참주가 묻자 솔론은 ‘노년을 믿고’라고 대답했다고 하네”(키케로, 2014: 82).

이상에서 보듯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시기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은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

4 키케로의 논리에 대한 비판

키케로의 노년예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보통 노인을 No人, 즉 비존재로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인이 되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유리이론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Know人, 즉 현자, 어른,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의 전환을 만든 논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년의 불리함이 오히려 현자의 덕목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특히 키케로의 노년의 자기계발은 많은 노년기의 사람들에게 당장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키케로의 논의는 실제로 노년예찬일까? 소수의 힘 있는 노인을 미화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키케로의 가문은 부유한 지주 계급이었고(김용민, 2007: 4), 그가 전형적인 모델로 제시한 노인들도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80세까지 살면서 학문을 한 플라톤, 94세에 유명한 책을 쓴 이소크라테스, 107세까지 일을 했던 고르기아스 등이 그가 제시한 노년의 상이다(장미성, :172021). <노년의 역사>를 저술한 역사가들은 노년에 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강자의 목소리로 채워진다고 비판한다:

“노년과 빈곤은 모두 힘들지만, 둘이 만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흔한 격언이었다. 그러나 사료가 엘리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의 인물로 알고 있는 수많은 개개인의 경우에는 빈곤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노예뿐 아니라 재산이 그들의 문제를 털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음이 틀림이 없다”(팻 테인 등, 2012: 115).

이처럼 노년은 가진자들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 부자 노인들은 빵, 즉 생존의 걱정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그들은 빈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술과 철학의 자기계발을 할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키케로는 귀족출신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진자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언급했다. 반대한 책 <노년>의 저자 보브아르도 같은 견해를 말한다:

“노인 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단지 지배 계급들 내부에서만 제기된다. 19세기까지 ‘늙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노인들이 많지도 않았다. 장수란 특혜를 받은 계급 안에서만 가능했다. 그래서 그들의 수는 엄격히 말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보브아르, 2012: 121).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첫째,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둘째, 노년은 우리 몸을 허약하게 하며, 셋째, 노년은 우리에게서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가며, 넷째, 노년은 비참한 죽음으로 가는 길목이다.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통설이 모두 일반적인 노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 노인들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자기계발은 언급생심이다. 키케로가 전

형으로 삼고 있는 노인은 다음과 같다:

“마르쿠스 발레리우스 코르바누스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시골에 살면서 백 세까지 계속 발을 경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 그의 인생 마지막 시기가 중년기보다 행복하였는데, 그 시기는 일을 점점 적게 하면서도 점점 많은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지. 자, 노년을 영예스럽게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라네”(키케로, 2000: 93).

키케로는 “노년, 특히 공적인 영예를 지닌 노년은 대단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서 젊은이의 모든 쾌락보다 더 가치있다네”라고 말한다(키케로, 2000: 94). 이처럼 자기계발은 특정인들의 점유물이다:

“큰일은 육체의 힘이나 재빠름이나 기민함이 아니라, 사려 깊음과 영향력과 판단력에 의해 행하여진다네. 노년이 되면 이러한 특징들이 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해진다네”(키케로, 2000: 40).

“까다롭지도 않고 친절하면서도 자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노년을 수월하게 보낸다네. 그러니 까다로움과 무례함은 인생의 어떤 시기에도 해가 되는 법이지”(키케로, 2000: 27).

키케로의 노년예찬은 특정 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이다. 특히 문제는 이런 자기계발 담론이 노인들을 비하하고 차별하는데 일조한다는 점이다:

“젊은이들과 똑같은 욕망, 감정, 요구 등을 표명하는 노인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게 된다. 노인들의 사랑과 질투는 추하거나 우스꽝스럽고, 성 행위는 혐오스러우며, 폭력은 가소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들은 모든 미덕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은 그들에게 평정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평정함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한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노인들의 불행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들 자신의 승화된 이미지, 그것은 백발의 후광에 싸인 경험이 풍부하고 존경할 만한 인간, 인간 조건을 저 높은 곳에서 굽어보는 현자이다. 그런 이미지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노인들은 형편없이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그리하여 첫 번째 이미지에 대립되는 이미지가 부여된다. 그것은 노망이 들어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해서 어린애들의 놀림감이 되는 실성한 노인이다. 여하튼 미덕에 의해서건 또는 타락에 의해서건, 노인들은 인간이라는 범주 밖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나가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것조차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보브아르, 2020: 11-12).

이상에서 보듯이 노인이 자기계발을 하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현자와 철인왕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노인에게 좋은 뉴스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시간과 자원을 가지지 않고,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 노인들은 낙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노년의 비참함과 비굴함은 그들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5 노년의 조건에 관하여

키케로가 주목한 노인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노인이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경을 받았다. 특히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녀들이 돈이 있는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노년의 역사>에서 이와 관련된 재미난 우화가 있다:

“대중적 이야기에서는 노인이 계락을 써서 이긴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다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가 이사하여 그들과 동거한 뒤에도 그들이 자신을 계속 잘 대접해주도록 보장책을 세운다. 남은 재산은 자물쇠가 채워진 상자 안에 들어 있는데, 그의 사망 시에 개봉하도록 되어 있다. 그가 죽자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가 상자를 연다. 그 안에는 글이 새겨진 큰 몽둥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팻 테인 등, 2012: 24).

그 몽둥이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을까:

“[부모가] 구걸해야만 할 정도까지 퍼주는 자는 뺨을 때까지 몽둥이질을 당해야 한다”(팻 테인 등, 2012: 24).

노년은 늘 배고픔과 싸움이었다. 따라서 빈곤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늘 가족과 사회의 짐이었다. 이런 점에서 <노년의 역사>는 근대화 이론에서 나온 노년의 풍경을 비판한다. 근대화 이론은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존경받았지만, 근대의

해가죽이 되면서 노인의 지위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역사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돈과 권력이 있을 때 노인이 존경받았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도 노년이 권위와 존경이 자연스럽게 부여되지는 않았다. 사회의 기능적 구성원으로서 존속하는 개인의 능력에 많이 좌우되었다: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나이만으로 존경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유럽문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문화에서 드문 일이다. 연령에 무관하게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존경을 획득했다. 아니면 부와 권력이 복종을 강요했다. 부유한 노인은 적어도 걸어서는 공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노인은 지역공동체의 보살핌을 받거나, 아니면 추방되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었다”(팻 테인 등, 2012: 29-30).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차별도 여전히 존재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나이든 여성은 차별받았고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로마 문학은 젊거나 나이 든 상류층 남성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늙은 여성의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도 많이 서술했는데, 섹스광 마녀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가장 악의적이고 외설스러운 표현으로 묘사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는 불쾌하다는 것 외에도 연령과 젠더의 측면에서 주변화의 증거가 된다. 출산 활동이 지나감으로써 나이 든 여성은 기능을 상실한 사회구성원으로 버림받았을 공산이 크다”(팻 테인 등, 2012: 92).

빈곤과 성의 문제가 전통사회에서 차별의 요소였다. 빈곤한 여성노인은 심지어 마녀로 공동체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계급간 격차이다. 동일한 노인이어도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은 노년을 경유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노년의 또 다른 구성요소는 사회적 지위였다. 엘리트에게 노년으로서의 진입은 적어도 10여 년은 늦추어졌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안락한 (또 때론 호화스러운) 주거, 그리고 육체적으로 덜 힘든 생활스타일 덕분에 남녀의 얼굴과 몸매에서 노년의 가장 분명한 표지가 더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한층 더 높은 생활수준의 결과 폐경은 여성의 노년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데 단지 사소한 역할만 했을 뿐이다. 즉 결과적으로 엘리트 집단 사이에서는 노년의 시작이 남녀 성별에 따라 날카롭게 차별화되지는 않았다”(펫 테인 등, 2012: 188-190).

결론적으로 노인은 특정 나이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보브아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연령집단이든, 특정 연령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다루길 원하는 관습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펫 테인 등, 2012: 451).

보브아르는 “아이들이 미완성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노인도 팔다리가 잘린 성인이 아니라, 완벽하고 독창적인 경험을 살아

은 개인”으로 볼 것을 권유한다(보브아르, 2020: 680). 같은 맥락에서 주멜리는 “노년을 ‘비노인’으로 살거나, ‘노인없는’ 노년 살기”를 권한다. 사회적 시선의 노년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장문석, 2024: 43). 그렇다면 왜 모든 노인이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집단 속의 존재가 되었을까. 보브아르는 계급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배 계급이다. 그러나 활동력이 있는 인구 전체가 그 공모자이다. 사적인 생활에서도 자식들과 손자들은 노인들의 운명을 좀 더 즐겁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보브아르, 2020: 303).

이상에서 보듯이 노인에 대해 총체성의 관점이 필요하다. 총체성의 관점은 노인은 개인으로서 각각 다른 고유성과 개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인이 특정한 집단의 한 개체, 혹은 비슷한 종류의 특징을 가졌다면 이것을 어떤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노인은 단일한 특징을 갖는 동일한 개체군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계급, 성, 마을, 사회, 국가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유범상·유해숙, 2022).

총체성의 관점은 노인에 대한 편견에 맞선다. 늙음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거나 불쌍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노년은 우리 문명의 모든 실패를 고발한다. 노인의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온통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인간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재창조해야 한다.

한 인간으로 하여금 말년을 빈 손으로 외롭게 맞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보브아르, 2020: 760).

이 글은 키케로의 노년예찬에 대해 논의했다. 키케로는 노년이 예찬을 받으려면 노인들 스스로가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에 대해 보브아르는 노년의 자기계발은 사회적·정치적 조건없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성찰하고 관조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이들은 권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이었다. 키케로의 노년예찬에 나타난 어른은 현실적으로 일반 노인들에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계발에 성공한 노년을 보편적인 노년의 사례로 삼는다면, 자원의 부족으로 기회를 갖지 못한 노인들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다.

본 논문은 노년의 시기를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것을 제안한다. 총체적인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모든 노인이 고유성과 개성을 가진 시민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권력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논문 투고 일: 2024.07.27.

□ 심사 완료 일: 2024.08.15.

□ 게재 확정 일: 2024.08.16.

참고문헌

- 김용민, 2018, 『키케로의 철학』, 한울.
- 김용민, 2007, 「키케로의 정치철학: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제16집 1호).
- 보브아르, 2020, 『노년: 나이듦의 의미와 그 위대한』(홍상희·박혜영 역), 책세상.
- 마사 너스바움, 솔 레브모어, 2018, 『지혜롭게 나이든다는 것』(안진이 역), 어크로스.
- 유범상·유해숙, 2022, 『선배시민』, 마북.
- 장문석, 2024, 「유럽사에 나타난 나이듦의 다양한 이미지」, 『나이듦에 대하여』, 사회평론.
- 장미성, 2021, 「노년은 비극인가: 키케론의 『노년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인간, 환경, 미래』(제26호).
- 정진웅, 2011, 「노년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제31집 3호).
- 키케로, M. T., 2000, 『노년에 관하여』(오홍식 역), 궁리.
- 키케로, M. T., 2014, 『노년에 관하여』(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 팻 테인 등, 2012, 『노년의 역사』(안병직 역), 글항아리.

Critical Consideration of ‘Elderly’ Discourse Focusing on Cicero’s <On Old Age>

Yoo, Bum-Sang

Dept. of Social Welfare
KNOU

This paper is a critical examination of Elderly discourse. First, we examine the content of Elderly discourse, focusing on Cicero's <On Old Age>, which philosophically justifies the image of the elderly. The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ritical discussions on Elderly discourse, focusing on Beauvoir's discussion.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critically examine the meaning of Elderly discourse at a time when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democratization generation are entering old age.

Cicero consistently praises old age in his book <On Old Age>. In the same context as Plato's argument that becoming a philosopher king is possible only in old age, Cicero sees old age as a time to know the meaning of life. However, I believe that in old age, if one does not develop oneself, not everyone will have the same time as a wise man. In response to this, Beauvoir criticizes Cicero's old age in the book <Old Age>, saying that old age is only possible for the wealthy.

He argues that the structure of inequality and class must change in order for ordinary elderly people, not those with power and economic power, to be able to develop themselves. This paper examines Cicero's praise of old age based on Beauvoir's discussion, and exa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diversity in old age is secured.

| **Key Words** | Elderly discourse, Old Age, Cicero, praise of old age, Beauvoir, the structure of inequality